

## 難妊의 原因과 背景에 대한 考察 - 韓醫學 文獻을 중심으로 -

<sup>1</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sup>2</sup>韓醫學古典研究所  
尹銀卿<sup>1, 2</sup> · 丁彰炫<sup>1, 2</sup> · 張祐彰<sup>1, 2</sup> · 白裕相<sup>1, 2</sup>\*

### A Study on Infertility - Cause and Meaning Based on Korean Medical Classics -

Yoon Eun-kyung<sup>1, 2</sup> · Jeong Chang-hyun<sup>1, 2</sup> · Jang Woo-Chang<sup>1, 2</sup> · Baik You-sang<sup>1, 2</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Korean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ough a socially constructed disease, the burden of infertility has been cast upon the individual in recent times, leading to aggressive medical technologies to achieve pregnanc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that is involved in this life phenomenon.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many aspects of infertility, first through its meaning in the medical classics.

**Methods** : Texts were chosen from before and after the Song period, when the study and practice on women's health took a launch into becoming a specialized field. *Huangdineijing*, *Jinguiyaolue*, and *Zhubingyuanhoulun* listed basic theories considering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woman, while *Jiaozhufurenlangfang*, *Donguibogam*, and *Fuqingzhuyixue* dealt with specialized contents regarding women.

**Results** : The finding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aspects of infertility; natural, medical and non-medical. The three aspects of infertility would not be easy to distinguish in real life, as they are inter-connected through the body as a site of embodiment.

**Conclusions** : The discussion of the many aspects of infertility outside of the immediate medical definition implies the complexity of infertility as a life phenomenon, bring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experience in the life context.

**Key Words** : Infertility, Women's Health, Medical Classics

## I. 序 論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02-961-0326, E-mail: baikys@khu.ac.kr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Received(29 January 2015), Revised(15 February 2015),

Accepted(15 February 2015).

##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난임(難妊)은 불임(不妊)을 대신하는 용어로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는 없으며 치료 및 시술을 통하여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정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sup>1)</sup> 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sup>2)3)</sup>인 동시에, 현대의 의학기술 발달과 관점의 변화로 실제로 이전에는 임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임신이 가능토록 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드물어진 현대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sup>4)</sup> 不妊과 難妊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자면, 不妊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신능력의 절대적 상실이나 부재를 의미하는 반면에 難妊은 임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서,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만 해결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

의학적 관점에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보편적인 능력<sup>5)</sup>이므로, 不妊이 암시하는 상실하거나 부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 難妊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 ‘難妊’이라하기로 한다.

難妊은 삶의 다양한 측면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은 의학의 영역에서 주로 정의되고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難妊의 원인이 남성과 여성 각각의 신체, 더 구체적으로는 분자생물 단위의 정자와 난자의 건강상태 및 수정란이 착상할 자궁의 상태 등으로 환원되어 이해되고, 이에 대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難妊에는 의학적인 측면과 더불어 의학적 진단과 개입이 적용될 수 없는 비의학적인 측면이 있다. 즉, 임신이 성장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생명현상인 것과 같이 노화에 따라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임신 적령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는 難妊의 경우가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원인불명이라 정하고, 이를 해결코자 점차 제3의 요소가 요구되는 기술로써 難妊을 해결하려고 한다.<sup>6)</sup> 노화로 인한 難妊마저도 신기술로 극복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難妊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나 배경을 드러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難妊으로서 드러난 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는 결과물의 획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상을 의학의 체계로 끌어들이는 의료화(medicalisation)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되어 의학적 판단 하에 문제가 되는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행동을 의학적으로써 ‘치유’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sup>8)</sup> 서구에서

- 1)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2005년 不妊을 難妊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1년 표준국어대사전에 난임을 등재시켰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법률상 ‘不妊’을 ‘난임’으로 바꿔 표기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단체의 임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難妊은 임신은 어렵지만 임신 가능성은 충분한 상태”라면서, “不妊이라는 말은 차별적인 폭력”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3년 6월 3일자.
- 2) <중앙일보>에서는 難妊者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세 가지를 추린 기사를 실었다. 첫째는 “누구는 손만 잡고 자도 아이가 생긴다던데”식의 말, 둘째는 “조급하면 안 생겨”와 같이 難妊者들이 들으면 예민한 성격을 갖는 것처럼 들리는 말, 셋째는 “입양이나 해. 포기하면 임신 된다더라”식의 설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이다. 중앙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不妊’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2년 19만 1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그 수가 20만 1589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 4) 정자를 난자의 배란에 맞추어 여성의 몸 안에 넣어주는 인공수정,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시킨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주는 시험관아기기술(IVF)이 가장 대표적인 難妊 치료방법이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생의학적 임신에서 난자와 정자의 문제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의 정자나 난자 또는 대리모를 이용하여 임신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上古天眞論編第一.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11.
- 6) 대리모나 대리난자를 통한 임신의 경우를 말한다.
- 7) 가임기의 난자를 추출하여 냉동시킨 후, 임신을 원하는 때에 정자와 수정시켜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냉동시켰던 난자를 이용한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개념은 삶의 여러 요소가 개입하는 질병현상을 실험실에 기반 하는 생의학의 틀로써 단순화시켜 환자의 고통경험을 소외시키고 질병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간과한다는 비판적인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難妊을 극복하고자 제시하는 방법들 또한 환원적인 의료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주, 사회, 개인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학적 관심의 대상인 몸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압축되어 신체현상으로서 표현되는 장이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현상은 개인이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 문화, 자연환경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의료화 된 難妊이라는 질병현상은 기계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생의학적 관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증상은 해결해야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이면의 더 근원적인, 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징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은, 삶의 나머지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시작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難妊의 원인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고찰함으로써 難妊이 내포하고 있는 신체상태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함께 드러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현황

현대 생의학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不妊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難妊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 영국에서는 ‘밝혀진 생식 병리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2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sup>8)</sup>으로 정하고 있고, WHO에서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생식계의 질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생식의학 학회<sup>10)</sup>에서는 WHO의 정의를 따르며

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나이에 따른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sup>11)</sup> 한 의학적 難妊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생의학의 不妊진단 기준을 언급하고 이 정의에 따라 문헌상의 내용을 고찰하거나 비교하기도 했다.<sup>12)13)</sup> 이들 연구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難妊의 진단이 어떤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難妊은 의학적인 측면 이외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한데, 그 예로는 難妊의 생물, 심리,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찰<sup>14)</sup>, 難妊의 원인을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논의한 연구<sup>15)16)</sup> 및 難妊의 사회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sup>17)</sup> 등이 있었다. 또한 難妊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難妊 기간 동안 경험하는 정서 상태에 관한 연구<sup>18)19)</sup>, 難妊 개념이 의료화 되면서 보조생식술을 받는 難妊者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고찰한 연구<sup>20)</sup>, 難妊의 진단이 여성에게 미치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다룬 연구<sup>21)</sup>,

Reproductive Medicine. Fertil Steril 2008;90.

8) Becker, Nachtigall. Eager for medicalisation: the social production of infertility as a diseas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Vol.14 No.4. 1992.  
9)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guideline 2004.  
10) Practice Committee of the American Society for

11) Gurnath et al. Defining infertility—a systematic review of prevalence studies. *Human Reproduction Updates*. Vol.17. No.5 pp.575-588. 2011.  
12) 김철원 외. 여성불임의 원인분류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4(1). 1991.  
13) 김반섭 외. 여성불임의 원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9권 제1호. 2001.  
14) Gerrity. A biopsychosocial theory of infertility. *The Family Journal*. 9:151. 2001.  
15) Damant. *The body speaks: Psychogenic infertility, femininity and life scripts*. Rand Afrikaans University. 2003.  
16) Apfel et al. Psychoanalysis and infertility: myths and rea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3. 85. 2002.  
17) David et al. Societal causes of in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 among the settled Fulani of North Cameroon. *Man, New Series*. Vol.16. No.4. pp.644-664. 1981.  
18) 황승숙. 不妊여성의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양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9) 이윤정. 不妊여성의 슬픔에 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20) Becker, Nachtigall. Eager for medicalisation: the social production of infertility as a diseas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Vol.14 No.4. 1992.  
21) Whiteford et al. Stigma: The hidden burden of

難妊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힘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한 연구<sup>22)</sup>가 있었다. 難妊이 의학적 현실로서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편중된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의 難妊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sup>23)</sup>

이러한 연구는 難妊을 야기하는 측면의 다양성과 그것이 내포하는 함의의 복잡성, 그리고 難妊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시대 별 부인과 영역의 주요한 한의학 문헌을 자료로 삼았다. 부인과 영역은 宋代에 이르러 전문적인 분과로 발전하여 부인과 전문 서적이 편찬되었다. 宋代 이전의 서적 중에서는 전반적인 생리와 병리에 대한 이론이 수록되어 있는 『黃帝內經』, 『金匱要略』, 『諸病源候論』을 살펴보았다. 특히 『諸病源候論』에서는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한 논의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여 부인과가 전문화되기 직전의 의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에는 부인과 전문서인 宋代의 『婦人大全良方』에 明代 薛立齋가 교주한 『校註婦人良方』과 조선 후기에 편찬된 『東醫寶鑑』, 그리고 靑代의 『傳靑主女科』에서 難妊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의학에서 難妊과 연관된 용어들에는 ‘無子’, ‘不孕’, ‘求子’, ‘求嗣’, ‘種子’ 등이 있다. ‘無子’나 ‘不孕’은 아이가 없는 상태를 일컬으며, ‘求子’, ‘求嗣’, ‘種子’는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들을 키워드로 위의 문헌들에서 難妊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검토한 결과, 難妊에 대한 관점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難妊이다. 사람은 태어난 이후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노화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기가 어렵게 된다. 둘째는 의학적인 難妊으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難妊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의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비의학적인 難妊으로, 임신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으며 그 원인을 의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상신이나 死者, 사회적 가치의 준수, 사회적 공헌, 운기나 사주, 배우자에 대한 배려 등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았다.

### 4. 연구의 목표와 향후기대

難妊 환자의 급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 및 제도적 차원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難妊의 함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신이라는 결과를 위한 무분별한 기술과 각종 지원책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그러나 難妊은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명현상이기에, 이를 의학적인 의미로만 환원하면 생명의 의미도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難妊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측면들이 얽혀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한의학은 天人相應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를 전제하여, 사람의 몸은 이러한 관계가 다양한 증후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체현이 일어나는 장이다. 따라서 몸에 대한 고찰은 그 몸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로 논의를 확장시키며, 나아가 그러한 관계망 속에서의 사람에 대하여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본고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難妊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확장코자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기존의 病因病期가 중심이 되는 의학적 측면 이외의 측면들에 대한 고찰은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한 과정이다.

難妊이라는 몸의 징후가 암시하는 개인이 맺고 있는 스스로와, 타인과, 자연과, 사회와, 우주와의

infertility. Soc. Sci. Med. Vol.40. No.1. 1995. pp.27-36.

22) 강지연. 설득의 기술: 현대한국不妊클리닉에서의 치료의 수사학.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23) Greil et al. The experience of infertility: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Vol.32. No.1. pp140-162. 2010.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고찰은, 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실제의 삶에 대한 관찰을 더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삶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특정한 틀로써 환원시키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것이 경험되는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한의학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고찰내용은 이후의 연구를 위한 초석이며, 생명과 의학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II. 本 論

### 1.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難妊

사람은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다. 성장은 잉태의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남자의 경우에 첫 夢泄, 여자의 경우에는 첫 月經 과 같이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여자는 완경기<sup>24)</sup>를 겪으면서 아이를 가지고 낳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몸 안에서 이와 더불어 이전과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月經 으로 표현되는 임신능력이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듯,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인 것이다.

#### 1) 『黃帝內經』에 나타나는 難妊

『黃帝內經』에서는 천지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몸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노화하여 죽을 때까지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특히 「上古天真論」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식능력이 고갈된 탓인지를 묻는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시간표대로 순차적인 발달을 하는데, 특정한 나이에 이르면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생명

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가, 특정한 나이가 되면 그것이 다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帝曰, 人年老而無子者, 材力盡邪, 將天數然也. 岐伯曰, 女子 [...]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sup>25)</sup>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材力이 다한 것입니까? 혹은 天數가 그러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여자가 [...] 二七의 열네 살에는 이윽고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소통되며 太衝脈이 차게 되어 月經이 때에 맞추어 내리므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 七七의 마흔아홉 살에는 任脈이 비고 太衝脈이 약하고 작아지며 天癸가 고갈되며 地道가 통하지 않게 되므로 형체가 무너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7은 여성이 따르는 숫자이고, 8은 남성이 따르는 숫자로서, 여자가 7을 일곱 번째로 맞이할 나이가 되면 任脈이 비고 太衝脈이 쇠약해지며 적어지고 天癸가 다하여 地道가 통하지 않으므로 형체가 무너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8을 여덟 번째로 맞이하게 되면 腎이 쇠약해진다고 되어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고갈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帝曰有其年已老, 而有子者, 何也. 岐伯曰, 此其天壽過度, 氣脈常通, 而腎氣有餘也, 此雖有子, 男不過盡八八, 女不過盡七七, 而天地之精氣, 皆竭矣. 帝曰夫道者, 年皆百數, 能有子乎. 岐伯曰, 夫道者, 能却老而全形身年雖壽, 能生子也.<sup>26)</sup>

황제가 말하기를, 그 나이가 들어 이미 늙었거늘

24) 흔히 폐경기(menopause)라고 일컫는데, 이는 月經이 멈췄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임신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여자로서의 쓸모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가임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의 ‘완경’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上古天真論編第一.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11.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上古天真論編第一.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11.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이는 그 天壽가 한도를 넘어서 腎氣와 太衝脈이 오히려 소통되어 腎氣가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자식을 낳을 수는 있으나 남자는 八八의 예순네 살을 넘지 못하며, 여자는 七七의 마흔아홉 살을 넘지 못하여 天地의 精氣가 다 없어집니다. 黃帝가 말하기를, 무릇 道를 통한 사람은 나이가 모두 백세가 되었을지라도 능히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무릇 道를 통한 사람은 늙음을 물리쳐 형체를 온전히 할 수 있으니, 몸의 나이가 비록 많으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특정한 나이가 되면 고갈된다고 하였는데 어찌해서 임신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道가 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사람이 하늘로 부여받은 생명력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가에 따라 생식력을 연장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道가 통하여 타고난 생식능력이 고갈된 이후에도 그 능력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사람의 임신능력 및 생리기능이 하늘로 부여받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 그것의 발현에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지만, 그것의 연장이나 유지는 자신에게도 달려있기에 개인이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難妊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하여 『諸病源候論』에서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꼽는데, 첫째는 조상의 묘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은 경우, 둘째는 부부간에 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 셋째는 부부가 병든 경우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경우는 임신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만이 약을 써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의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難妊으로 구분했다.<sup>27)</sup> 이 경우에서 남자와 여자를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본 것은 아이가 남자와 여자의 精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한의학적 관점을 반영한다.<sup>28)29)</sup> 따라서 임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양쪽에서 원인을 찾는다.

### 1) 남성

難妊의 남성 측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精氣에 대하여 언급했다. 『金匱要略』에서는 남성의 精 상태가 맥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男子脈浮弱而澁爲無子, 精氣清冷.<sup>30)</sup>

남자의 맥이 뜨고 약하면서 걸끄러우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精의 기운이 맑고 차갑다.

又泄精, 精不射出, 但聚於陰頭, 亦無子.<sup>31)</sup>

또한 정액이 새거나, 사출될 수가 없어 다만 음두에 모이기만 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정액에 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를 사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남자는 難妊의 상태이다.

更當察其男子之形氣虛實何如. 有腎虛精弱, 不能融育成胎者, 有稟賦微弱, 氣血虛損者, 有嗜慾無度, 陰精衰倦者, 各當求其源而

27) 巢元方. 諸病源候論·虛勞無子候.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5. “婦人無子者, 其事有三也. 一者墳墓不祀, 二者夫婦年命相剋, 三者夫病婦疹, 皆使無子. 其若是墳墓不祀, 年命相剋, 此二者, 非藥能益. 若夫病婦疹, 須將藥餌, 故得有效也.”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本神第八.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68.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29) 金達鎬.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p.228. “靈樞懸解·本神三十八: 人身形象之根源, 神氣之室宅也. 而陰陽之理, 本自互生, 其所以化精者, 以其中有神也. 此神之來, 不在精後, 當其男女交時, 兩精相搏, 凝此一段祖氣, 清虛靈妙, 是謂之神.”

30) 張仲景.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6.

31) 巢元方. 諸病源候論·虛勞無子候.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

治之.<sup>32)</sup>

재차 마땅히 그 남자의 形과 氣의 虛實이 어떠한 지도 살펴야 한다. 腎이 虛해서 精이 약하여 잘 융합하지 못하므로 受胎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미약하고 氣血이 虛損되어 그러한 경우가 있고, 즐기는 것에 절제가 없어서 陰精이 쇠약해져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 각각 그 근원을 파악하여 치료해야 한다.

남자가 精이 약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 정이 약한 원인에는 腎이 허하거나 타고난 체질이 약한 것이 있고, 즐기고자 하는 욕심을 과도하게 부려서 精氣를 고갈시킨 경우가 있다.

男子, 陽精微薄, 則雖遇血海虛靜, 流而不能直射子宮, 多不成胎, 蓋因平時, 嗜慾不節, 施泄太多, 宜補精元, 兼用靜工存養, 無令火動, 候陽精充實, 依時而合, 一舉而成矣.(入門)

남자가 陽精이 부족하면 비록 血海가 고요한 때를 만나도 자궁으로 직접 사정하지 못하고 흘러나가 대부분 잉태가 되지 않는다. 평소에 즐기는 것에 절도가 없어 精이 지나치게 많이 새어나갔기 때문이다. 精의 근원을 보하면서 고요히 수련하여 몸을 기르고, 화가 동하지 않게 하여 陽精을 충실하게 한 뒤에 때에 맞추어 성교하면 단번에 성공할 것이다.

男子, 脈微弱而澁 爲無子 精氣清冷也, 宜陽起石元. (脈經)<sup>33)</sup>

남자의 맥이 미약하면서 결끄러우면 자식이 없다. 이는 精의 기운이 맑고 차기 때문이므로, 마땅히 陽起石元을 써야 한다.

임신에 있어서 남성의 精氣의 중요성은 『東醫寶鑑』에서도 볼 수 있다. 여성의 血이 아무리 건강하

더라도 남자의 精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難妊으로 이어진다. 精의 쇠퇴가 일어나는 이유는 평상시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데, 즐기고자 하는 욕심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여서 결국 精을 지나치게 소모시킨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精을 직접적으로 補하는 약과 욕심이 동하지 않도록 스스로 수양하기를 제안했다.

이와 같이 남자의 難妊에 있어서는 精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陽氣의 문제나 六淫의 邪氣로 인하여 병이 든 것을 원인으로 들기도 했다.

人之無嗣, 或因丈夫陽氣之不足, 不能施化, 或因婦人陰血衰憊, 百疾攻之.<sup>34)</sup>

사람이 아이가 없는 것은 혹 남자의 陽氣가 부족하여 퍼뜨리고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혹 여자의 陰血이 쇠약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얻어 그러한 것이다.

寒疝者,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辜丸而痛得之. 坐臥濕地, 或寒月涉水, 或值雨雪, 或坐臥風冷, 使內過房, 宜以溫劑下之, 久而無子.(子和).<sup>35)</sup>

寒疝은 음낭이 차갑고 돌처럼 단단하게 멎쳐 음경이 서지 않는 것으로, 혹 고환이 당기면서 아프기도 하다. 습지에 앉거나 눕거나, 겨울철에 얼음판 위를 건너거나, 비나 눈을 맞았거나, 찬바람을 쏘이며 앉거나 누웠거나,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생기는데, 따뜻한 약으로 내려 보내야지, 이것이 오래되면 자식을 갖지 못한다.

2) 여성

難妊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문헌에서는 여성의 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陰血로 대표되는 여성의 몸은 남자와는 달리 자궁을 중심으로 매달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치면서 특정한 생리현상을 겪는

32)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 文光圖書有限公司. p.2.

33)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745.

34)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求嗣服藥須知第九. 文光圖書有限公司. p.11.

35)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818.

다. 초경에서부터 완경까지의 기간 동안 한 달을 주기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임신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과 광범위한 관계망의 기능이 섬세하고도 복잡하기에 難妊을 경험하는 여성의 몸에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然婦人挾疾無子，皆由勞傷血氣，冷熱不調，而受風寒，客於子宮，致使胞內生病，或月經澁閉，或崩血帶下，致陰陽之氣不和，經血之行乖候，故無子也。<sup>36)</sup>

(그러므로) 부인에게 병이 있어 자식이 없는 경우는 대개 노동으로 血氣가 상하여 冷熱이 조화롭지 않은데 風寒에 감수하여 (이것이) 자궁에 客하여 그 안에 병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으니, 혹 月經이 걸려되거나 막히고, 혹 崩漏나 帶下가 나와 陰陽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는 데에 이르러 경혈의 운행이 무너지게 되므로 자식이 없다.

竊謂婦人之不孕，亦有因六淫七情之邪，有傷衝任，或宿疾淹留，傳遺臟腑，或子宮虛冷，或氣旺血衰，或血中伏熱，又有脾胃虛損，不能營養衝任。<sup>37)</sup>

생각건대 부인의 難妊은 六淫과 七情의 邪氣로 인한 경우가 있고, 衝任脈을 손상시킨 탓일 수 있고, 혹은 묵은 질병이 머물러 있다가 다른 장부로 옮겨진 탓이거나, 자궁이 虛冷하거나, 氣는 왕성한데 血이 쇠약하거나, 血 가운데에 熱이 잠복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 또한 脾胃가 虛損되어 衝任脈을 영양하지 못하여 그러한 경우가 있다.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難妊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있다. 外感, 七情傷, 飲食傷 및 過勞傷과 같이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인하여 신체를 구성하는 血氣에 이상이 생기며, 月經, 임신 및 출산을 관장하는 자궁 및 경락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

중 한 가지 측면만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血로 대표되는 여성의 생식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일련의 과정과 조건 안에서 임신의 능력이 손상되는 것이다. 즉,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병의 맥락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발전하고 변화하여 難妊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外感의 냉기가 경맥으로 들어와 혈과 만나 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멎쳐서 적취가 생겨 月經이 통하지 않게 되고, 적취가 점점 쌓여 자궁에서 멎치게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難妊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難妊의 원인은 그 때까지 일어난 신체 변화의 맥락 전체이며, 맥락을 무시한 채 한 가지 요인만 짚어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難妊의 여성요인은 月經이 원활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sup>38)</sup> 이로부터 血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내외부적 요인이 다루어지고, 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묘사되며, 그것이 장차 어떻게 발전하여 임신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는지 설명되어 있다.

#### ① 難妊의 인자들

難妊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外感, 그 중에서도 風과 冷이 있고, 몸을 손상시키는 올바르지 않은 식생활 및 과도한 노동이 있으며, 七情의 손상이 있다.

月水不通而無子者，由風寒邪氣客於經血。<sup>39)</sup>

月經이 통하지 않아 자식이 없는 경우는 風寒의 邪氣가 經血에 머무르는 것에서 말미암는다.

積聚起於冷氣，結入子臟，故令無子。<sup>40)</sup>

36) 巢元方. 諸病源候論·積聚候.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2.

37)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 文光圖書有限公司. p.2

38)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745. "生人之道，始於求子. 求子之法，莫先調經. 每見婦人之無子者，其經，必或前或後，或多或少，或將行作病，或行後作痛，或紫或黑，或淡或凝而不調，不調則血氣乖爭，不能成孕(丹心)."

39) 巢元方. 諸病源候論·積聚候.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78.

40) 巢元方. 諸病源候論·積聚候.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2.

積聚는 冷氣가 자장에서 멎치는 것으로부터 생기니, 이 때문에 자식이 없게 된다.

癥瘕之病, 其形冷結, 若冷氣入於子臟, 則使無子.<sup>41)</sup>

癥瘕의 병은 冷氣가 멎친 형태이니, 만약 冷氣가 子臟으로 들어가면 자식이 없게 된다.

月水不利而無子者, 由風寒邪氣客於經血, 則令月水否澀, 血結子臟, 陰陽之氣不能施化, 所以無子也.<sup>42)</sup>

月經이 통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것은 風寒의 邪氣가 經血에 머물러 月經이 원활하지 못하여 血이 子臟에서 멎쳐 陰陽의 기운이 퍼뜨리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말미암으니, 이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다.

風寒 또는 風冷의 기운은 몸에 침입하여 경혈에 머무르기도 하고, 머무름이 길어지면 멎치는 경향으로 月經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것이 발전하면 자궁 내부에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르면 자궁이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月經은 더욱 흐르지 못하여 급기야 막히기도 하며, 자궁 내부에 덩어리가 있음으로서 임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문헌에서는 외부의 邪氣 중에서 風冷의 邪氣가 經血로 들어와 그대로 머무르기도 하고, 자궁으로 들어가 멎친다고 설명했다.

產則血氣勞傷, 腑臟虛弱, 而風冷客之, 風冷搏血氣, 血氣則不能自溫於肌膚, 使人虛乏疲頓, 致羸損不平復, 謂之風冷虛勞. 若久不瘥, 風冷乘虛而入腹, 搏於血則否澀, 入腸則下利不能養, 或食不消, 入子臟, 并胞臟冷, 亦使無子也.<sup>43)</sup>

출산을 하면 그 수고로움으로 血氣가 상하고 臟腑가 허약한데 風冷의 邪氣가 머물러 血氣와 부딪치면 血氣가 肌膚에까지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결핍되고 피로하게 하여 여위고 약하게 되어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이것을 일컬어 風冷虛勞라고 한다. 만약에 오랫동안 이것이 낫지 않으면 風冷의 기운이 허함을 타고 올라 뱃속으로 들어가 血과 부딪쳐 결끄럽게 되니, 腸에 들어가면 설사를 하여 영양할 수 없고 혹 먹더라도 소화되지 않아 子臟으로 들어가 包臟을 차갑게 하니, 또한 자식이 생기지 못하게 된다.

子臟冷無子者, 由將攝失宜, 飲食不節, 乘風取冷, 或勞傷過度, 致風冷之氣, 乘其經血, 結於子臟, 子臟則冷, 故無子.<sup>44)</sup>

자궁이 차가워 자식이 없는 것은 장차 섭생을 잃는 것에서 말미암으니, 음식에 절도가 없고, 風氣를 타고 冷氣를 취하며, 혹 노동으로 상하는 것이 과하여 風冷의 기운이 經血을 타고 오르는 지경에 이르러 자궁에서 멎치면 자궁이 차가워지므로 자식이 없다.

문헌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 血氣가 손상되고 고갈된 상태에서 風冷의 기운이 자궁에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되면, 그것이 자궁을 차갑게 만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차가운 자궁은 임신이 어려우며, 임신이 되더라도 태아를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자궁이 차가워지는 데에는 外感이 작용하지만, 그 이전에 外邪의 영향을 받는 몸의 상태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아이를 낳은 직후의 몸뿐만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노동을 과하게 한 상태로, 기혈이 손상되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다.

七情과 여성 難妊의 연관성 또한 긴밀하다. 『校註婦人良方』에서 薛立齋는 여성 難妊 원인에 六淫과 더불어 七情이 있음을 언급했다.<sup>45)</sup> 孫思邈은 『千金

41) 巢元方. 諸病源候論·積聚候.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2.

42)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5.

43)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202.

44)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5.

45)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 文光圖書有限公司. p.2. “竊謂婦人之不孕, 亦有因六淫七情之邪”

翼方』에서 여성의 병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여자는 욕심이 남자보다 많고, 병에 걸리는 것도 남자의 배가 되는데다가 자식생각, 사모, 미움, 질투, 근심, 성냄, 고집,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병이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남자보다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sup>46)</sup> 여성의 감정 활동이 활발한 만큼 여성의 신체 또한 그러한 감정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본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도 여자를 보는 법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생식능력의 척도가 되는 月經이 원활한지를 보려면 성격을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어 감정과 여성 생식력과의 관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性行和者，調經易，挾性行妬者，月水不勻。<sup>47)</sup>

품성과 행실이 조화로운 경우에는 月經이 순조롭고, 품성과 행실에 질투가 있는 경우에는 月經이 균일하지 않다.

성격이 조화로우면 月經이 원활하고, 질투를 하는 경우에는 月經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질투가 임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나라에 편찬된 부인과 전문서인 『傳青主女科』에도 보인다. ‘嫉妬不孕’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쪽지에서는 마음 속에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肝의 기운이 울결된 것의 영향이며, 心脾胃의 맥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肝의 울결을 심화시켜 다시금 경맥의 순환을 방해하고, 나아가 임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락을 막아 임신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되어있다. 기쁜 감정이 있으면 울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울체되면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울체된 상태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sup>48)</sup> 『傳青主

女科』에서는 성내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장부의 울체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치료도 장부의 울체부터 치료해야한다고 하여 감정 또한 장부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질투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임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은 당시 여성의 올바른 품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 ② 여성의 陰血

남자의 경우에 精氣를 강조했다면, 여자의 경우에는 血을 중시했다. 문헌에서는 難妊의 대표적인 원인을 설명할 때 조상 및 본인의 덕행 부족, 부부의 사주가 맞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신체적인 차원을 논할 때 남자는 정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여성은 血이 차가운 것을 들었다.<sup>49)</sup>

冷搏於血，血冷則凝結，故令月水不通。<sup>50)</sup>

冷氣가 血과 부딪쳐 血이 차가워지면 결끄러워져 멎치므로, 月經이 통하지 않게 된다.

血은 경맥을 따라 들어온 外邪의 영향을 받는다. 血은 따뜻해야 원활하게 흐르는데, 외부에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 차가워져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심하면 멎치게 된다. 그리하여 점차 月經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51)</sup> 血이 멎는 것이 오래되면 血癥로 발전하기도 한다.<sup>52)</sup>

脉郁而能生子者也。若三部脉郁，肝气必因之而更郁，肝气郁则心肾之脉必致郁之极而莫解。盖子母相依，郁必不喜，喜必不郁也。其郁而不能成胎者，以肝木不舒，必下克脾土而致塞。脾土之气塞，则腰脐之气必不利。腰脐之气不利，必不能通任脉而达带脉，则带脉之气亦塞矣。带脉之气既塞，则胞胎之门必闭，精即到门。亦不得其门而入矣。其奈之何哉？治法必解四经之郁，以开胞胎之门，则几矣。”

46)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文光圖書有限公司。p.4. “然而女人，嗜慾多於丈夫，感病倍於男子，加以慈戀愛憎，嫉妬憂患，染著堅牢，情不自抑，所以為疾根深療之難痊。”

47)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746.

48) 傅山. 傳青主醫學. 北京. 学苑出版社. 2006. pp. 263-264. “妇人有怀抱素恶不能生子者，人以为天心厌之也，谁知是肝气郁结乎。夫妇人之有子也，必然心脉流利而滑，脾脉舒徐而和，肾脉旺大而鼓指，始称喜脉。未有三部

49)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文光圖書有限公司。p. 12. “無嗣者有三，一祖施無德，自身無行。二夫妻年命，恐犯禁忌。三精神不守，妻妾血寒。”

50)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2.

51) 『諸病源候論·瘕痞候』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冷氣로 인하여 血이 멎쳐 자궁 안에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경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月經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若冷氣入於胞絡，搏於血氣，血得冷則凝，令月水不通也。”

血이 차가워짐으로써 각종 難妊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외에 血 자체의 질이나 양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今婦人無子者， 率由血少不足以攝精也  
[...] 竊謂婦人之不孕， 或氣旺血衰， 或血中伏熱.<sup>52)</sup>

지금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혈이 적어 精을 거두는 것이 부족함으로써 그러하다 [...] 생각건대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혹 氣는 왕성한데 血이 쇠약하거나, 혹 血 가운데 熱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薛立齋는 『校註婦人良方』에서 丹溪의 말을 인용하여, 여자의 難妊 원인을 血이 적어 精을 거둘 수 없는 것임을 말했다. 또한 氣는 왕성한데 血이 쇠약하거나 血 가운데에 熱이 잠복한 경우도 難妊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혈이 적거나 쇠약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자궁 안으로 들어온 남자의 精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치료에서는 血을 기르고 月經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sup>54)</sup>

### ③ 자궁

임신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장부는 자궁이다. 자궁은 여성에게만 있는 특수한 기관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여성의 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의 몸은 주기적으로 배란과 그에 뒤따르는 月經을 겪으면서 일정한 생리적 패턴을 가진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궁인데, 그것은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血과 관련이 깊은 장부, 衝任脈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고도의 조절기능을 수행한다.<sup>55)</sup> 따라서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 생리 패턴에 이상이 생기고, 月經이상으로 드러나며, 難妊에 이르게 된다.

子臟冷無子者， 由將攝失宜， 飲食不節， 乘風取冷， 或勞傷過度， 致風冷之氣， 乘其經血， 結於子臟， 子臟則冷， 故無子.<sup>56)</sup>

자궁이 차가워 자식이 없는 것은 장차 섭생을 잃는 것에서 말미암으니, 음식에 절도가 없고, 風氣를 타고 冷氣를 취하며, 혹 노동으로 상하는 것이 과하여 風冷의 기운이 經血을 타고 오르는 지경에 이르러 자궁에서 멎치면 자궁이 차가워지므로 자식이 없다.

積聚起於冷氣， 結入子臟， 故令無子.<sup>57)</sup>

積聚는 冷氣가 자궁에서 멎는 것으로부터 생기니, 이 때문에 자식이 없게 된다.

然婦人挾疾無子， 皆由勞傷血氣， 冷熱不調， 而受風寒， 客於子宮， 致使胞內生病， 或月經澁閉， 或崩血帶下， 致陰陽之氣不和， 經血之行乖候， 故無子也.<sup>58)</sup>

(그러므로) 부인에게 병이 있어 자식이 없는 경우는 대개 노동으로 血氣가 상하여 冷熱이 조화롭지 않는데 風寒에 감수하여 (이것이) 자궁에 客하여 그 안에 병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으니, 혹 月經이 결끄러거나 막히고, 혹 崩漏나 帶下가 나와 陰陽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는 데에 이르러 경혈의 운행이 무너지게 되므로 자식이 없다.

月水不利而無子者， 由風寒邪氣客於經血， 則令月水否澁， 血結子臟， 陰陽之氣不能施化， 所以無子也.<sup>59)</sup>

52)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 185. “血結聚不消， 則變為血瘕， 經久盤結成塊， 亦作血瘕.”

53)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 文光圖書有限公司. p.2.

54)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745. “婦人無子 多由血少不能攝精 宜調養經血 宜百子附歸丸 琥珀調經丸 加味養榮丸 加味益母丸 濟陰丹 勝金丹 調經種玉湯 先天歸一湯 神仙附益丹 調經養血元 溫經湯.”

55) 백유상. 熱入血室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2013. 26. 4. pp.268, 276.

56)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 185.

57)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2.

58)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 185.

59)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

月經이 통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것은 風寒의 邪氣가 經血에 머물러 月經이 원활하지 못하여 血이 子臟에서 멎쳐 陰陽의 기운이 퍼뜨리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말미암으니, 이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다.

病在子臟, 胞內受邪, 故令無子也.<sup>60)</sup>

자궁에 병이 있으면 胞 안에서 邪氣를 받으므로 자식이 없게 된다.

藏積之生, 皆因飲食不節, 當風取冷過度. 其子臟勞傷者, 積氣結搏於子臟, 致陰陽血氣不調和, 故病結積而無子.<sup>61)</sup>

臟에 積이 생기는 것은 모두 음식에 절도가 없고, 風에 당하고 冷을 취하는 것이 과도한 것에 기인한다. 자궁이 힘쓰므로 인해 상하면 자궁에서 氣가 쌓이고 단단하게 멎쳐서 陰陽血氣가 조화롭지 못한 것에 이르니, 그러므로 병이 멎쳐서 쌓이면 자식이 없다.

若調攝失宜, 飲食失節, 乘風襲冷, 結於子臟, 亦令無子也.<sup>62)</sup>

만일 섭생을 하는 것을 잃어 음식에 절도를 잃고 風을 타고 冷이 침습하여 자궁에서 멎치면 또한 자식이 없게 된다.

자궁에 병이 드는 것은 외부의 차가운 기운의 영향과 더불어 섭생의 실조로 인하여 몸이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음식을 과도하게 먹거나, 차갑고 습한 데에서 오래 있었거나, 노동이 과하면 몸의 血氣가 약해져서 외부의 기운에 더욱 약해지고, 血이 차가워져 運行이 저체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자궁 내부의 덩어리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다.

無子婦人瘦怯者, 乃子宮乾澁, 宜滋陰養血 [...]  
肥盛軀脂, 滿溢子宮, 宜行濕燥痰 [...]  
(丹心)<sup>63)</sup>

아이가 없는 부인이 마르고 약하면 자궁이 메마르게 되니, 마땅히 陰을 자양하고 血을 길러야 한다 [...]  
지나치게 비만하여 기름이 자궁에 넘칠 때는 마땅히 습을 잘 통하게 하고 담을 말려야 한다.

太肥脂滿子宮, 太瘦子宮無血, 俱不宜子, 不可不知. (入門)<sup>64)</sup>

너무 비만하여 자궁에 기름이 켜 있거나, 너무 야위어 자궁에 血이 없으면 모두 자식을 갖지 못하니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궁은 아이가 잉태되는 장소로서, 그것이 아이가 생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면 임신이 어렵다. 문헌에서는 자궁이 차가운 경우, 자궁에 덩어리가 생긴 경우, 자궁이 마르고 곱끄러운 경우, 자궁에 기름이 낀 경우를 아이를 갖기 힘든 경우로 보았다. 또한 血에 冷氣가 들어와 그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이내 자궁에 이룬다고 하였고, 그 결과 자궁에 冷氣가 멎치거나, 자궁이 차갑거나, 血이 마른 경우에는 받아들인 남자의 精을 거두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자궁은 血의 運行을 조절하고, 또한 血이 모이고 활동하는 본거지이면서, 남자와 여성의 精血이 만나는 장소인 것이다.

자궁은 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및 경맥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룬다고 했다. 여기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에 衝任脈이 있다. 여자가 14세가 되어 任脈이 통하고 太衝脈이 성하면, 月經이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거꾸로 49세가 되면 任脈이 허해지고 太衝脈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sup>65)</sup> 이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任脈과 衝脈,

185.

60)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 185.

61)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 186.

62)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 文光圖書有限公司. p.4.

63)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745.

64)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746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上古天真論編第一.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11.

더불어 督脈에 병이 들면, 임신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難妊이 있을 수 있다.<sup>66)</sup>

竊謂婦人之不孕 [...] 有傷衝任 [...] 又有脾胃虛損, 不能營養衝任.<sup>67)</sup>

생각건대 부인이 임신이 어려운 것은 [...] 衝任脈에 상함이 있거나 [...] 또한 脾胃가 虛損됨이 있어 衝任脈을 영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衝脈과 任脈이 月經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經脈이기에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月經에 문제가 생기고, 難妊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衝任脈은 자궁을 영양하므로, 脾胃가 허약하여 衝任脈을 영양하지 못하면, 자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衝任脈 이외에도, 자궁은 血을 매개로 臟腑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脾胃로부터 영양을 받는다. 이외의 經脈에 대해서는 『傳靑主女科』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難妊의 경우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五臟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며, 相生相剋의 과정에서 臟腑 간의 연결망으로서의 臟腑脈을 언급하고 있다.<sup>68)</sup>

### 3. 비의학적인 難妊

의학의 영역에서 難妊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 병이 들어 생식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아서 병, 또는 병을 불러일으킨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에는 의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음을 의가들은 언급한다. 당시의 의학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 즉 당시의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조상신과 부부간의 궁합을 들었다.

婦人無子者, 其事有三也. 一者墳墓不祀,

二者夫婦年命相剋, 三者夫病婦疹, 皆使無子.<sup>69)</sup>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 둘째는 부부간의 사주가 상극인 경우, 셋째는 부부에게 모두 병이든 경우로, 모두 자식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현대에도 유효하다. 의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조상이나 귀신 탓을 하여 굿을 하고, 부부가 되기 전에 미리 궁합을 보아 아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의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sup>70)</sup>

或者用計百端, 妾媵無數, 及皓首終身, 不能如其意者. 是皆心行有虧, 非命也. 苟能革心之非, 所行向善, 積德累功, 施恩施惠, 則上天之報施, 自然慶流後裔.<sup>71)</sup>

혹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첩을 셀 수 없이 두었으나 백발이 되어 죽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마음과 행동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행동을 선하게 하여, 공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하늘이 이에 보답하여 자연히 경사가 있어 자손을 얻게 된다.

69)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185.

70) 원인불명의 難妊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 생의학에서 제공하는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IVF)은 남자의 精과 여자의 血의 결합을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환원시켜, 각각을 임신의 주요 구성인자로 본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 難妊 치료의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수정에서는 정자를 여자의 배란에 맞추어 몸속에 넣어주고, 시험관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 착상토록 한다. 현대에는 생명의 창조까지도 의학의 영역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71)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 文光圖書有限公司. p.11.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骨空編第六十.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209.

67)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 文光圖書有限公司. p.2.

68) 傅山. 傳靑主醫學.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253-274.

『校註婦人良方』에서 薛立齋는 부부의 사주나 조상의 묘 자리를 문제 삼은 巢元方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지만,<sup>72)</sup>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넉넉함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는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공덕과 덕행을 쌓음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 특히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 것은 커다란 복이기에, 덕행을 쌓아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에 상응하는 복, 즉 후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薛立齋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안을 적음으로써 難妊에 대하여 의학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1) 조상신의 영향

가족중심 사회에서 대를 이어갈 아이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 불행한 상황이므로, 조상신은 후손에게 무사히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겨 가족이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기를 바란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조상신에게 제사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을 드는 것도 후사를 얻는 데 있어서 조상신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竇禹鈞夜夢其亡祖父謂之曰，汝緣無子，又且不壽，宜修善行。自是佩服乃訓。復夢祖父謂曰，汝名掛天曹，以有陰德，特延算三紀，勅錫五子。悉皆榮顯。<sup>73)</sup>

두우균이라는 사람의 꿈에 돌아가신 조부가 나타나 “너는 자식이 없고 또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선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마음에 깊이 새겨 교훈으로 삼았다. 다시 꿈에 조부가 나타나 “너의 이름이 天曹에게 알려져 陰德이 있음으로써 특별히 30년은 더 살고 다섯 명의 아이를 둘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모두 그와 같이 되었다.

아이가 없는 주인공은 꿈에서 만난 조상신에게서

72)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陳無擇求子論第一。文光圖書有限公司。p.2. “又巢氏謂夫妻年命克制，墳墓不利者，理或有之。”

73)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0.

수명이 짧은데다가 자식까지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듣는다. 이를 가슴에 새기고 착한 일을 했더니, 다시 꿈에 조상신이 나타나 그의 선행이 천상의 관부에게 알려져 수명이 연장되고 자식을 여럿 둘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공인 두우균은 자신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꿈에서 조상신과 조우함으로써 인식하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여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다.

### 2) 올바르게 살기

평소에 올바르게 산 것의 대가로서 아이가 주어졌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張慶司獄，惟務方便，年五十始生子亨，有一道人巧於門，謂慶曰，汝本無嗣，今聞嬰兒聲，非若子乎。慶曰，偶得一子，道人曰，信乎。陰德未易量，爾之積累善事，非一朝一夕，今不但有嗣，又有喜子孫文學之貴，宜善保之。後果如其言。<sup>74)</sup>

장경은 감옥을 관리하였는데, 오직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힘썼다. 5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식 亨을 얻었다. 어떤 道人이 문에 탁발하며 慶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본래 자식이 없을 팔자인데, 지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慶이 “우연히 자식 하나를 얻었습니다.”라고 답하자 道인은 “참되다! 陰德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당신이 선행을 쌓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지금 자식을 두었을 뿐 아니라 자손이 文學의 귀인이 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니 마땅히 선행을 계속 하도록 하시오”라 말했다. 후에 道인의 말처럼 되었다.

이미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道인이 나타나 아이가 생긴 것은 평소에 올바르게 산 것의 대가이며, 음덕을 지속적으로 쌓으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언한다.

74)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0.

### 3) 억울한 죽음을 막은 것에 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항하여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아이가 생긴 경우가 있다.

馬默未有嗣，知登州日，奏活沙門島罪人，不致枉死。一日，夢中見身便挾一男女，乘空來其前，呼曰，爾本無嗣，以活人數多，上帝特賜男女各一。言訖不見，果如其言。<sup>75)</sup>

마묵은 자식이 없었는데, 登州의 지사로 일할 때 沙門島의 죄인을 살리도록 상주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준 적이 있었다. 하루는 꿈에 어떤 사람이 남녀아이를 양쪽에 편안히 끼고 나타나서는 불러서 말하길 “당신은 본래 자신이 없을 팔자이나 평소 사람을 살려준 음덕이 많아 옥황상제께서 특별히 그대에게 아들과 딸 하나씩을 주었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사라졌는데 과연 그 말처럼 되었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것을 막아 한 목숨을 살려서 그에 대한 대가로 天上의 가장 높은 옥황상제가 보낸 아이 둘을 얻게 되었다. 옥황상제가 아이를 둘 보냈다는 것은 그의 공덕이 큰 대가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보여준다.

### 4) 팔려온 여성에 관한 이야기

#### ① 부모 과실로 팔려온 여성

가족, 특히 부모의 과실로 인해 팔려온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였다가 그 연유를 알게 되어 돌려보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없던 아이가 생긴다.

馮商，其妻每勸置妾，商娶一女，己成。聞其父因官綱運欠折，鬻女以償之，商惻然，不忍犯，更益以資裝，送還其父，明年生馮京，後登狀元。<sup>76)</sup>

풍상이라는 사람은 그의 처가 늘 첩을 두기를 권하여, 그가 한 여인을 첩으로 들여 혼사를 치렀다. 나중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관청의 물건을 운송하다가 손실을 입혀 딸을 팔아 보상했던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商은 이를 측은히 여기고, 그녀를 차마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물을 더 써서 여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더니 다음 해에 馮京을 낳았고, 훗날 장원급제 하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이가 없다가 부인의 권유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들인다. 이후 주인공 내외는 아이를 얻지만, 그것은 주인공이 첩으로 들었던 여인의 사정을 헤아려 그를 해결해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가 여인과 여인의 가족에게 덕을 베풀었기에 자식을 가질 수 있었고 훗날 이 아이는 장원급제라는 큰 사회적 성공을 했다는 것이다.

#### ② 장례비용의 대가로 팔려온 여성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에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팔려온 딸을 첩으로 들였다가 그의 사연을 듣고 장사를 대신 치러준 경우에 자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기록이 가장 많이 실려 있다.

時邦美之父，老而無子，置一妾，對暗空悲泣，問之，乃曰，父卒於官，鬻妾欲辦喪耳。時遂攜金措往其家，殯葬而歸，未幾，生邦美，後舉進士。官至吏部。<sup>77)</sup>

시방미의 아버지는 나이 들도록 자식이 없어서 첩을 하나 두었는데, 첩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연유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아버지께서 관청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첩으로 팔려 뺨을 치르고자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재물을 신고 함께 첩의 집으로 가서 장사를 치르고 돌아왔다. 얼마 안 돼서 邦美를 낳았고, 후에 진사가 되었으며, 벼슬이 吏部에까지 이르렀다.

袁韶父爲郡吏，年五旬，置一妾，乃宦家女

75)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1.

76)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0.

77)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1.

也，父歿家貧，鬻而歸葬。袁知其故，即送還，更以襄資益之，明年生詔，既長，爲參知政事。<sup>78)</sup>

원소의 아버지는 고을의 벼슬아치였다. 나이 선에 첩을 두게 되었는데, 벼슬이 있는 집의 여자였다. 아버지가 죽고 집이 빈곤하여 자신을 첩으로 팔고 집으로 돌아가 장사를 지냈다. 원소가 이런 연유를 알고 바로 돌려보내면서 재물 꾸러미를 덧붙여 보내 주었다. 다음해 詔를 얻었고, 그가 커서 參知政事가 되었다.

馮涓之父無子，置一妾，聞其父喪官所。無力歸葬，故鬻此女，即日訪其母而歸之，且厚資助。夜夢一羽衣曰，天賜爾子，慶流涓涓。明年生一子，因名曰涓。既長及第。<sup>79)</sup>

풍연의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 첩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 첩의 아버지가 관청에서 죽었으나 장사를 지낼 여력이 없어 이 여자를 판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날로 그 어머니를 찾아가 딸을 돌려주고, 또한 후하게 재물로써 도와주었다. 꿈에 한 도사가 이르기를, “하늘이 당신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집안에 경사가 물 흐르듯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해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이런 까닭에涓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커서는 과거에 급제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주인공은 처에게 아이가 없어서 대를 잇기 위해 첩을 들었다. 그러나 첩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팔려온 여인들이다. 주인공은 그러한 여인의 사연을 듣고 그녀를 돌려보내고, 더불어 그녀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어 여인의 한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주인공은 원하던 자식을 얻고, 그 자식들은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거나, 큰 벼슬을 얻음으로서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명예를 가져왔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마음에 응어리가 생긴 여

인의 사정을 헤아리고 도와주었다는 것 이외에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장례라는 의식으로 잘 마무리 된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 死者의 넋을 위로해주고 또한 그 딸을 위로함으로써 주인공은 귀신의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생명으로써 복을 받았다.

## 5) 사주와 운기

難妊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부부의 교합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 때 부부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 발달의 문제로서, 여자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血이 아직 약해서 精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sup>80)</sup> 그러나 부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는, 미리 정해진 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부부의 궁합이 맞더라도, 아이가 잉태되는 때의 기운이 적절해야 아이가 생기고, 생긴 아이가 잘 자라난다고 본다. 또한 상서롭지 않은 환경에서 부부가 성교를 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기를 지켜야 임신이 원활하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보았다.

若欲求子，交感之時，必天日清明，神思清爽，氣血諧和，與天德福德相合。夫婦本命，五行相生，竝本命帝旺而生者，則壽而賢，否則不可得也。<sup>81)</sup>

만일 아이를 가지고자 한다면 성교를 하는 때의 날이 하늘이 맑고 밝아야 하며, 정신과 생각이 뚜렷하고 맑고 즐거워야 하며, 氣血이 조화롭고, 天德과 福德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 부부의 타고난 사주의 오행이 상생하고, 더불어 근본 운명이 좋게 자식이 태어난 경우에는 장수하고 어질며, 그렇지 않으면

78)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1.

79)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求子服藥須知第九。文光圖書有限公司。p.11.

80)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二。文光圖書有限公司。p.3. “女雖十四而天癸至，必至二十而嫁，皆欲陰陽完實，然後交而孕，孕而育，育而子堅壯強壽，今未笄之女，天癸始至，已近男色，陰氣早泄，未完而傷，未實而動，是以交而不孕，孕而不育，而子脆之不壽，此王之所以無子也。”

81) 陳自明著，薛立齋註。婦人良方大全·卷九。文光圖書有限公司。p.4.

자식을 얻을 수 없다.

위의 내용에서, 임신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째로 부부관계를 하는 날의 기운이 좋아야 하며, 둘째로 부부의 마음이 즐겁고 정신이 맑아야 하며, 부부가 건강해야 하며, 셋째로 하늘의 덕과 사람의 복이 서로 맞아들어야 하고 넷째로 부부의 궁합이 맞아야 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명이 짧거나 박복하다고 보았다.

凡求子宜吉良日交會。當忌丙丁及弦望晦朔，大風雨霧寒暑，雷電霹靂，天地昏冥，日月無光，虹霓地動，日月薄蝕，及日月火光，星辰神炁，井竈園廂，塚墓死柩之傍，若交會受胎，多損父母，生子殘疾夭枉，愚頑不孝。若不母如法，則生子福德智慧，驗如影響，可不慎哉。<sup>82)</sup>

무릇 아이를 가지려면 마땅히 좋은 날에 부부관계를 가지도록 한다. 丙丁日和 음력 그믐과 초하루,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안개가 심한 날, 몹시 추운 날, 몹시 더운 날, 번개 치는 날, 천둥치는 날, 천지가 어둡고 해와 달에 빛이 없는 날과 무지개가 뜨는 날과 지진이 생기는 날이나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을 피한다. 또한 노천의 햇빛과 달빛이나 불빛과 별빛 아래, 사당과 절 안, 우물과 부엌, 화장실 곁, 무덤과 시체 곁 등을 피한다. 만약 이런 금기를 어기고 부부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해가 많고 태어난 자식은 불구가 되거나 빨리 죽거나 바르지 못하여 어리석고 둔하며 불효한다. 부부가 이 금기를 잘 지킨 경우에는 태어난 자식이 복과 덕이 많고 지혜롭다. 그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데 어찌 이를 신중히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는 임신을 하려고 할 때 피해야 하는 상황이나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주의를 주고 있다. 의

부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강한 날이나, 해와 달의 기운이 치우쳐 있는 날, 빛이 강한 곳이나 지나치게 어두운 곳, 死者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곳은 피하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다른 조건이 임신에 적절하더라도, 사람이 외부 기운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을 접하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겨 氣血이 불안정해지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考 察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을 일컬어 '난임(難妊)'이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뜻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단정적인 의미의 '불임(不妊)'과 달리 임신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신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실제로 각종 신기술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의학적 상황과 들어맞고, 어떻게든 임신에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들어맞아 여러 관련 분야에서 '불임(不妊)'을 대체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는 이론적 사실과 임신에는 삶의 여러 측면과 그 측면들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끼치므로, 수많은 요인들을 단순화시켜 임신의 可不可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신에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은 사실 생명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고찰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의 생명이 생성되기까지는 부모의 精이라는 직접적인 측면 이외에도 부부간의 관계, 부부 각자가 살아온 역사, 그들이 속하여 살아온 사회의 역사, 문화 등 수많은 요소들과 맥락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지 가려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부의 몸, 즉 精氣神에 주목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難妊이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되더라도 그것이 전 부라고 보기 어렵다. 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82)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卷九. 文光圖書有限公司. p.4.

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끼치며 세계를 체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한의학 문헌의 難妊에 대한 내용에서는 의학적인 관점과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몸에 관한 의학적인 것에 대하여 초월적인 힘이나 선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준수 등을 難妊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妊娠의 해소에 있어서 몸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관점은 몸의 체현성을 전제하여 사회와 몸을 잇는 맥락이 있음을 내포하기에 임신의 요소를 한 개인의 신체, 더 나아가 분자 단위로 환원하여 조절코자 하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黃帝內經』, 『金匱要略』, 『諸病源候論』 등의 이론서와 부인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의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校註婦人良方』, 『東醫寶鑑』, 『傳青主女科』에서 難妊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難妊, 사람의 몸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의학적 難妊, 그리고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의학적 難妊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難妊은, 여타의 신체기능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갈 및 쇠퇴로서의 의미이다.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몸으로서의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그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노화하며 여러 가지 기능이 극대화되었다가 사그라진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시간의 효과를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수양과 섭생을 통하여 몸이 기능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것이다. 難妊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사람이 道가 통한 경우에는 간혹 임신이 가능한 나이를 넘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토록 한 건강한 몸으로, 현대에 각종 보조생식술로 노년기에 아이를 갖는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의학적인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難妊은 먼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문헌들에서 難妊의 원인에 대해 크게 조상신과 관련된 難妊, 부부의 사주와 관련된 難妊, 부부 모두 병이 든 것에서 비롯되는 難妊의 세 가지로 나누면서, 오직 세 번째 경우만이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명시한다. 의학적인 치료대상으로서의 難妊을 살펴보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難妊의 상태를 야기하는 요인에는 바깥으로부터의 기운, 내부의 감정적 상태, 그리고 식생활과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같은 섭생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여성의 몸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몸에서 難妊과 관련이 깊은 臟과 구성요소로서 자궁과 血이 있다. 難妊의 여성요인에 있어서 血과 자궁은 매우 중시되는데, 血과 자궁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血은 몸의 구성요소로서, 月經으로 대표되는 여성생리에서 주요소로 기능한다. 血이 원활하게 흐르으로써 여성의 생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의 중추로서 자궁은 주기적인 배란과 月經의 패턴을 조절하고, 이에 관여하는 장부경락을 운용하며, 임신을 위한 신체 현상이 발현되고 결실을 맺는 장이다. 따라서 자궁과 月經으로 대표되는 血은 의학적 難妊의 진단과 치료에서 매우 중시되었다.

비의학적인 영역에서의 難妊은 자연스러운 노화나 의학적인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종류의 難妊이다. 이러한 원인불명의 難妊에 대하여 현대의학에서는 여전히 의학영역에서 다루어 진단을 ‘원인불명’으로 내리더라도 해결은 의학기술을 통하여 꾀한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이러한 難妊에 대하여 달리 설명했다. 難妊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주나 기운을 든다. 부부간에 사주궁합이 맞지 않거나, 사주궁합이 맞더라도 성교할 당시에 나쁜 기운의 영향을 받으면 難妊으로 이어지거나,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쁜 기운이 원인이 되는 까닭은, 그 기운자체의 상서롭지 못한 탓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나쁜 기운에 쉽게 동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임신이 원활하게 되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우며 정신이 맑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하면 難妊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難妊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나쁜 기운을 피하고 좋은 기운을 취하여 교합하기를 제안한다.

이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難妊에 대하여 문헌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임을 말했다. 그러나 그 운명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노화라는 자연의 이치 앞에서도 수양으로 그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것かと 같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들에서는 다양한 덕행의 결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조상신이 꿈에 나타나 경교와 함께 교혼을 주어 그에 따라 선행을 했거나, 평상시에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했거나,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명했거나, 부모의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팔려온 여인을 돌려보냈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팔려온 여자를 돌려보내고 장례를 치러준 경우에 그 행위의 대가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아이를 가진다는 의미는 대를 잇는다는 의미로서 조상신을 포함하는 가족 전체에게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다. 그리하여 아이가 없다가 생긴 것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이러한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윤리적 잣대에 걸맞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조상신이나 天上의 上帝나 關리, 초월적인 존재를 통하여 아이가 없는 개인은 계시를 받거나 깨우침을 얻고, 현실사회에서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하였는가,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겼는가, 死者에 대하여 충분한 예의를 갖추었는가에 대하여 자신과 타인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답을 가졌을 때에 後嗣라는 복이 주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현대적 시각에 큰 의문을 던진다. 현대에서 건강과 질병은 개인의 신체에 국한되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타인과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 삶이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보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건강은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강에도 사회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의학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難妊을 그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노화에 따른 難妊에서는 몸의 유한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의학적인 難妊에서는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는 요인들과 특히 難妊에 있어서 중추가 되는 몸의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비의학적인 難妊에 대한 내용에서는 우주적,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역할과 집단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다. 難妊이라는 생명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임신에 이르는 과정 및 요소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임신, 즉 생명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질문에 맞닥뜨린다. 이에 대한 답은 삶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 아니어서는 얻기가 어렵다.

難妊을 경험하는 이들은 難妊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難妊을 야기할 수 있는 일련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이르게 된 과정을 거슬러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을 알아내고자 한다.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難妊으로서 드러나게 된 삶의 문제점, 정상적인 임신을 가능케 하는 맥락의 끊김이나 틀어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은 또한 어디에서 왔는지, 즉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難妊의 진단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개인에게는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선고로 느껴지기도 한다.<sup>83)</sup>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難妊 선고는 이러한 보편적 능력의 부재, 즉 정상인이 가져야 할 능력이 없는 장애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로

83) Becker. Metaphors in Disrupted Lives: Infertility and Cultural Constructions of Continuity.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8(4). 1994

부터 부여받은 생식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인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람은 자연에게서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 속에서의 삶은 몸에서 체현되고 갖가지 징후로서 드러난다. 이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병은 의학적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이며 치료 대상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삶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병은 삶의 또 다른 징후이며, 그것의 치료는 징후의 완화일 뿐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게 된 진짜 원인, 즉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관계망과 그 안에서 개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難妊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기 어려운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얽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부부에게만 국한되는 질병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맥락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難妊을 의료화 과정을 통해 탈사회화, 또는 개인화시키는 것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難妊者들의 삶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킬 위험이 있다.<sup>84)</sup>

## VI. 結 論

難妊은 삶 전체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이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지나친 의료화로 병으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해결 또한 신체에 대한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학의 문헌에서 살펴본 難妊의 내용에서는, 신체에 국한된 시각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서이기에 몸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사람은 몸을 매개로 신체 외의 측면들과도 무수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교류하기 때문에 의학적 시각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특이할 만 한 점은 다양한 행실로 인한 임신의 성공에 대한 사례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사회

적 가치, 도덕성, 죽음에 대한 예의 등이 올바른 행실의 기준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행실이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시각은, 새로운 생명이 부모 두 사람 만의 혈육이 아니라, 가족 및 사회의 後嗣임을 반영한다. 생명을 매개로 사회적 가치가 전승되면서 사회는 커다란 유기체로서의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難妊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몸에서 발현되는 현상이기에, 그에 대한 접근 또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의학 문헌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실제 難妊 경험의 고찰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 References

1.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 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pp.11, 20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p.11, 209.
2.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p.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68.
3. Zhang ZJ. Jinguiaolue. Beijing. Zhongyigujichubanshe. 1997. p.16.  
張仲景.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6.
4. Chao YF. Zhubingyuanhoullun. Beijing. LiaoningKexuejishuchubanshe. 1997. pp.18, 178, 182, 185, 186, 202.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18, 178, 182, 185, 186, 202.
5. Written by Chen ZM, annotated by Xue LQ. Furenliangfangdaquan. Wenguangtuchuyouxiangongsi. pp.(권2) 3, (권9) 2, 4, 11, 92.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 文光圖書

84) Becker, Nachtigall. Eager for medicalisation: the social production of infertility as a diseas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Vol.14 No.4. 1992

- 有限公司. pp.(권2) 3, (권9) 2, 4, 11, 92.
6. Heo Jun. Donguibogam. Hadong. Publisher of Donguibogam. 2005. pp.818, 1745, 1746.  
허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p.818, 1745, 1746.
  7. Fuchan. FuqingZhuyixue. Beijing. Xueyuanchubanshe. 2006. pp.253-274, 263, 264.  
傅山. 傅青主醫學. 北京. 学苑出版社. 2006. pp.253-274, 263, 264.
  8. Becker, Nachtigall. Eager for medicalisation: the social production of infertility as a diseas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992. 14(4).
  9. Gurunath et al. Defining infertility—a systematic review of prevalence studies. *Human Reproduction Updates*. 2011. 17(5).
  10. Kim CW et al. Documentary study on the causes classification of female infertility.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1991. 4(1)  
김철원 외. 여성불임의 원인분류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91. 4(1).
  11. Kim ES et al. Literature study on causes of infertility in women. *The Journal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Daejeon Univ*. 2000. 9(1)  
김은섭 외. 여성불임의 원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0. 9(1).
  12. Gerrity. A biopsychosocial theory of infertility. *The Family Journal*. 9:151. 2001. 권(호)
  13. Damant. The body speaks. Psychogenic infertility, femininity and life scripts. *Rand Afrikaans University*. 2003
  14. Apfel et al. Psychoanalysis and infertility: myths and rea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3. 85. 2002. 권(호)
  15. David et al. Societal causes of in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 among the settled Fulani of North Cameroon. *Man, New Series*. 1981. 16(4)
  16. Hwang SS.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experience of infertile woman.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1999.  
황승숙. 불임여성의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양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7. Lee YJ. An Ethnography on Infertile Women's Grief in Kore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8.  
이윤정. 불임여성의 슬픔에 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8. Whiteford et al. Stigma: The hidden burden of infertility. *Soc. Sci. Med*. 40(1).
  19. Kang JY. Technology of persuasion : the rhetoric used in infertility clinics in modern Korea.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 2011.  
강지연. 설득의 기술: 현대한국불임클리닉에서의 치료의 수사학.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20. Greil et al. The experience of infertility: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2010. 32(1)
  21. Baik YS. A Study on the Pattern of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4). pp.268, 276.

- 백유상. 열입혈실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13. 26(4). pp.268, 276.
22. Becker. Metaphors in Disrupted Lives:  
Infertility and Cultural Constructions of  
Continuity.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8(4). 1994
23. Kim DH. 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Uiseongdang. 2002. p.228.  
金達鎬.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228.